

# ‘철강산업 메카’ 광양시, 차세대 소재·부품산업 중심지 부상

### 14개사·2조3천635억 상당 투자 유치...882명 일자리 창출 소재·부품산업 53%·철강산업 44%...“미래먹거리 육성 매진”

광양시가 올 한해 대규모 투자협약을 이끌어내며 차세대 소재·부품산업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11일 광양시에 따르면 전남 시청 상황실에서 ‘2024년 제1차 광양시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해 투자유치 주요 현안 보고가 이뤄졌다.

광양시는 계속되는 글로벌 투자 확산 기세에서도 한화오션에코텍, 포스코인더스트리얼, 포스코중타이어솔루션 등 대규모 투자협약을 포함해 14개사 2조3천635억 상당의 기업 유치와 882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결실을 거뒀다.

업종별 투자유치 현황을 살펴보면, 친환경 에너지와 첨단 소재·부품산업

이 1조2천400억원으로 전체 투자액의 53%가 집중됐다. 전통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은 전체 투자액의 44%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특히 찾아가는 투자협약 기업 애로청취, 맞춤형 산단 전주조사 등 지속적인 기업 친화 정책을 펼치는 등 전략적 투자유치로 지자체 간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했다고 강조했다.

광양시는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한 자치법규 전면 개정 ▲포스코 저탄소 제철산업 투자협약 체결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개소 ▲벤처밸리 육성사업 등 올해 추진한 여섯 시책들 또한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광양시가 지난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4년 제1차 광양시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위원들이 올해 성과를 공유한 후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다. 철강산업의 메카로 불리던 광양은 철강산업의 고도화와 더불어 차세대 소재·부품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으며, 광양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미래먹

거리 육성·유치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더욱 확고히 했다.

위원회는 이날 심의안건으로 ▲2024년 투자유치 유공자 성과급 ▲투자기업 이행보장보증금권 수수료 50% 지원 ▲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등의 안건에 대해 각각 원안 의결했다.

또한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구성된 투자유치위원회 구성원은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

됐으며, 8명의 연인 위원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실무형 전문가 7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조병록 순천대학교 교수는 “광양시에서 유치한 전남클라우드센터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며 “시에서 육성 중인 벤처밸리 사업과 연계해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기업 유치는 청년 일자리와 지방 경제에 직결돼 있는 만큼 지방 소멸 시대를 타개하기 위해 빠르게 우위를 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로 위촉된 위원들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투자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우량 기업이 입주하고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매력적인 투자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양홍필 기자

## 장성 재래감 국제 가치 인정... ‘맛의 방주’ 등재

### 장성꽃시 등 8종 포함...대봉시 품종 80% ↑

장성 재래감(사진)이 슬로푸드국제 협회로부터 국제적인 보존가치를 인정 받았다.

11일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슬로푸드 국제협회 ‘맛의 방주’에 장성 재래감이 등재됐다.

‘맛의 방주’는 1997년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음식문화유산 보호·육성사업이다. 향토음식, 장인 생산물 등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음식이나 식재료, 관련 문화를 ‘맛의 방주’ 목록에 담아 관리한다.

대량 생산되는 먹거리에 밀려 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고유한 음식문화

를 지키겠다는 취지다. ‘방주’는 기록고 성서에 등장하는 커다란 배로, 노아가 대홍수로부터 세상의 모든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이번에 등재된 장성 재래감은 ▲장성꽃시 ▲장성상추감 ▲장성비단시 ▲장성쇠포가리 등 8종이다. 해당 종들은 타지역 재래감과 중복되지 않는 고유 유전적 특징과 이름을 지녔다. 주로 꺾임으로 가공하며 감장아찌, 떡, 한과 등으로 만들어 먹기도 한다.

장성지역 230여 농가에서 꺾임을 생산하고 있지만 품종은 대봉시가 80%



이상이다. 장성 재래감은 북하면 일원에서만 소규모로 재배되고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번 ‘맛의 방주’ 등재는 장성 재래감의 고유성과 가치를 확인한 주목할 만한 성과”라며 “추후 납도 단술, 장성 집장도 ‘맛의 방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 보성군,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호남 유일 우수기관 선정

### 주민 복지향상 높은 점수

보성군은 11일 “2024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부문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통합사례관리 운영 ▲지원조사·정비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간 연계·협력 등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평가 결과 전국 22개 중 8개 시·군·구가 선정됐으며, 보성군은 호남권 기초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보성군은 ▲복지지원 발굴 및 기관 간 공유를 통한 자원배분 ▲지원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자원개발 노력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모니터링과 컨설팅 지원 ▲통합사례관리 솔루션위원회 운영을 통한 슈퍼비전 제공 등 체계적인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복합적 욕구를 가

진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행복한 보성을 만들기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더불어 행복한 보

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온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든든한 복지정책과 복지위기가구 제로화를 위한 총출하고 두터운 ‘찾아가는 건강 복지600사업’ 등을 통해 중단없는 군민 행복 시대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보성=임병언 기자



담양군이 최근 군청 민원과에서 공무원과 경찰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황별 악성 민원에 대응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담양군 제공>

## 담양군, 악성 민원 대응 모의훈련 실시

### 공무원 보호·방문 민원인 피해 예방 목표

담양군은 “최근 군청 민원과에서 공무원과 경찰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제 훈련을 가장한 특이(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날이 증가하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방문 민원인의

2차 피해 발생 예방과 현장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훈련은 상황별 민원 발생 상황을 가정한 ▲민원인 진정 유도 ▲상급자의 적극 개입 ▲사전 고지 후 신체 착용 가능 카메라(웨어러블 캠)로 현장 촬영 ▲비상벨 작동(112 경찰 연결) 및 청원경찰 호출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 보

호 ▲가해 민원인 제재 ▲경찰 연계 등으로 구성했다.

또한 민원장구 직원 대상으로 배부된 웨어러블 캠 사용 방법과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기준, 특이 민원 유형별 대응 요령에 관한 교육도 함께했다.

박효정 민원과장은 “군민에게 질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악성 민원으로 인한 직원 불안감 해소와 민원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환경이 우선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민원실 운영과 보다 나은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근 기자

## 곡성군, 영귀서원 등 4건 향토문화유산 지정 예고

### 30일간 공고 후 지정 여부 확정

곡성군은 11일 “지난 9일 지역 내 유서 깊은 향토문화유산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총 4건의 유산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지정 예고된 유산은 곡성 영귀서원을 비롯한 구암사, 효자 신흥구 정려, 무곡사 등으로, 30일간의 공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영귀서원은 1564년 옥과현감 김인후의 학문과 절의를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사우로, 훼손과 복설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00년대 중반에 복설됐으나 원형 초석과 격식을 갖춘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가치가 높다.

구암사는 1799년 건립돼 청송씨씨 4현을 제향하던 사우로, 국가민속문화유산인 제호정 고택, 명승 함허정 일원과 역사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효자 신흥구 정려는 내부 명정 편액과 정려기 편액을 통해 효행의 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구암사의 ‘송사집’ 기록으로 1899년 중수 사실을 알 수 있어 향토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있다.

무곡사는 1956년 조원길을 주벽으로 조성된 정소를 배향한 사우로, 주벽인 조원길은 공양왕을 옹립한 1등 공신이자 역사적 인물로서 그를 기리는 문화적 의미가 크다.

조상대 곡성군수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발굴해 후대에 알리고, 보존 관리에 힘쓰겠다”며 군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곡성=김병필 기자

## 구례군, 초당대 산학협력단과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재위탁 협약

### 영양사 없는 기관 대상 서비스

구례군은 “최근 초당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구례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초당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2년 구례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이래 3년 동안 위생·안전 및 영양 관리 업무를 지원하며 어린이 급식의 체계적인 관리 능력을 인정받았다.

초당대 산학협력단은 이번 재위탁 심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2025년부터 3년 동안 어린이 급식시설의 전문적인 영양 관리와 위생 관리를 책임지게 됐다. 협약에 따라 구례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유치원·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업무는 ▲어린이 급식소 위생 영양 관리 실태조사와 방문지도 ▲어린이, 조리사, 원장 등 대상별 교육 ▲식단, 레시피, 가정통신문 등 정보제공 ▲어린이급식소 위생 및 영양 컨설팅

▲다양한 특화사업 추진 등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협약은 소규모 급식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초당대 산학협력단과 협력해 급식 위생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 기자



## 장흥군, 표고 버섯 활용 건강 먹거리 개발 ‘박차’

### 장흥샌드·버섯송이빵 등 16종 먹거리 소개

(재)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최근 장흥 원목표고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건강 먹거리를 개발하고 품평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품평회에는 관내 베이커리 업체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장흥 원목 표고 등 특산물을 활용한 특화빵 및 건강 먹거리 상품을 선보이며 시장 진입 가능성을 확보했다.

건강 먹거리에는 ▲장흥샌드 ▲화고

빵 ▲버섯송이빵 ▲수갑프레젤 ▲감빵 ▲감옥당 ▲삼합빵 ▲장흥표고리얼미트 등 16종의 다양한 상품이 소개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장흥 원목 표고 특유의 향을 많은 사람이 선호할 수 있도록 표고를 활용한 대체육 등을 선보여 참여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관내 업체 기술교육 및 지원을 통해 특화빵을 생산하고 판매할 예정이다. /장흥=노형록 기자